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지역 잔여필지 공급시행

지원센터, 기업유치와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가속행진 벌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21기업 유치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준공이 1년여 남은 기간인 작년 9월말에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준공전부터 착공에 들어간 기업들의 입주를 돕고 공장가동전부터 기술개발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전 후 총700여건의 검사분석과 60여건의 장·단기적 기술실용화 사업이 추진, 조기입주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지원하는 읍무즈맨 운영, 기업간담회, 1:1 코디네이터

와 PM제도, 착공을 준비할 수 있는 오픈공간인 스마트워크스테이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장가동을 위한 맞춤형 인력과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식품부 유관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지원센터 이전 후부터 작년 동기 대비 150% 이상의 투자실적으로 이어졌고 이미 13개사가 착공 및 가동준비를 마쳤으며, 39개의 국내외 기업과 별도로 29개사가 실용화와 대량생산의 전초기지로써 벤처센터

선택했다.

9월 말부터는 식품창업·촉진을 지원하는 '푸드플러스 창업지원 LAB'이 첫가동되어 농식품 생태계 조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에 가속이 붙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의 캠퍼비알이어, 독일의 프라운호퍼 등 해외 우수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및 기업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건강기능식품과학회, 한국영양학회 산업심포지엄 등이 클러스터내에 개최되어 국제 학술교류 및 산·

학·연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제7회 국가식품클러스터국제컨퍼런스(11월)'가 클러스터 출범이후 처음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에서 개최되어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북 농생명벨트 구성의 주요 기관과 기업인의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이해와 향후 대비를 위해 독일 인더스트리 4.0 선행사례의 벤치마킹과 협력을 위한 '한독 농식품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12월)'이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도약하는 한국경제, 지금이 투자해야 할 시점”

“한·미FTA, 호혜성 정당한 평가... 차별한 협상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금융·경제인들에게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뉴욕·금융 경제인과의 대화(Dialogue with President Moon)' 행사 연설에서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튼튼하고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도 안정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핵심협 이후에도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은 일시적인 변동 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추가지수가 연말까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경제·금융계도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6차 핵 실험에 대해 유례없이 신속히 일치된 목소리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난 60여년간 북한과의 대치상황에도 꾸준히 발전해 온 한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 출발점은 다시 ‘사람’이라고 하며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경제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른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3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제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금융·경제인들에게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다”고 말했다.

선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호간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상품에 강점이 있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에 강점이 있는 미국의 상호 호혜적 진출을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문 대통령과 금융·경제인의 질의응답에서는 북핵 리스크, 재벌개혁, 한국의 투자환경, 한국 경제정책 관련 주제의 질문들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문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주가가 연초 대비 20% 상승한 점을 예로 들며 북핵 리스크 우려에 대해 한국 금융자본 경제가 견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한미간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포기를 위해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취하면서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부총리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으로 인해 한국 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벌 대기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기업활동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알아두면 유익한 5가지 할인특약

실손보험 2년 동안 의료비 청구 안하면 10% 이상 할인

금융감독원은 2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

주요 할인 특약은 무사고자, 가족계약, 고액계약, 자동차, 수급권자 등 5가지다.

무사고자 할인 특약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에 적용된다.

지난 4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1~10% 덜 낼 수 있다.

가족계약 할인은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통상 할인은 10%인데 여행차보험을 비롯해 질병·상해보험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과 정기보험 등은 보험

가입금액이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 등 고액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준다.

여기에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1% 할인해준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의료보험의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뉴시스

추석 전 260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추석 전에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1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26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0만가구)의 10%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 7.5%, 홑벌이 가구 14.8%, 맞벌이 가구 5.9%로 홑벌이 가구가 가장 높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원 줄었다. 국세청은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재산요건이 완

화한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급액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이상 받는 가구는 57만가구(26.5%), 100만원미만 받는 가구는 158만 가구(73.5%)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11일부터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추석용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원 저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추석 제수용품 비용이 약 7만원 저렴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소요되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2만172원인 반면 대형마트는 평균 29만1648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7만원, 23.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최근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대상 대부분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44.5%), 수산물류(26.6%), 육류(26.4%)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추석 제수용품 중 가격 비중이 높은 쇠고기 등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나타났다.

/뉴시스

www.i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마늘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 오태식
상임이사 (경제) 나영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중앙회
전주농협 Good 농산물